



운동선수 및 만성질환 대상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의학센터 개소 8개 임상과 30여명 의료진 참여, 환자 및 운동선수 맞춤 운동치료 제공

현대 사회의 건강 대책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질병중심의 치료의학으로부터 질병에 대한 강한 저항력과 적응력을 높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개선시키는 차원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병에 따라서 약의 처방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운동도 자신의 건강상태나 체력수준에 맞는 운동방법, 강도,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발맞추어 고려대 안암병원에서는 현대인들의 각종 생활 습관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자신의 체력수준에 맞는 운동처방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포츠의학센터(센터장 이순혁, 정형외과 교수)를 운영하고 있다.



고대 아이스하키부 선수인 김재석(21)군이 등속성운동기계를 이용해 무릎 '내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에 따른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스포츠의학센터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내분비내과, 순환기내과, 류마티스내과, 중앙혈액내과 등 의료진 30여명과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운동연구사 등으로 구성됐고, 각종 유산소운동장비, 운동부하검사장비, 근력측정기 등 최첨단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스포츠손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검사와 운동처방이 병행되고, 운동의 강도, 빈도, 종류, 시간, 점진율 등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일반인 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 운동선수를 포함한 전문적인 운동선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부상의 예방,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선수들이 부상시에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경기에 복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먹는 약이 틀린 것처럼 운동도 각기 다르게 처방해야

각각의 먹는 약이 틀린 것처럼 운동도 자신의 건강, 체력상태에 따라 각기 다르게 처방 되어져야 한다. 운동처방은 운동의 빈도, 운동의 강도, 운동의 종류, 운동의 시간, 점진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의 상태와 체질에 따른 적절한 운동은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거나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다. 지방세포를 없애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정상 수치로 되돌리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혈압을 낮춰준다. 비만과 지방간 예방에도 좋다. 척추질환으로 인한 요통과 어깨 결림 등의 통증을 완화하고, 뇌에 적당한 자극을 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우울증 등 각종 정신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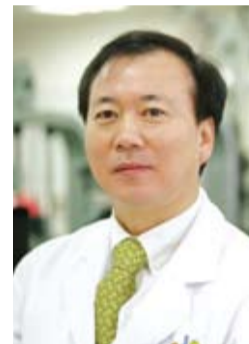
일반인과 차별화된 전문적인 운동선수의 관리



운동선수는 다양한 관점에서 일반인과는 다르게 관리 되어야 한다. 운동선수들은 일반인에 비해 기본적인 체력, 운동의 강도 등이 차이가 나며 부상의 위험이 많다. 또한 선수들의 종목에 따라 필요한 운동에 차이가 나며 적절한 운동을 통하여 훈련이나 경기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하고 경기에 임해서는 최고의 성적을 나타낼 수 있다.

이순혁 센터장은 “최근 웰빙 열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의 경우 자신이 어떠한 운동을 어떻게, 얼마나 해야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고 지적하면서 “이번 안암병원 스포츠의학실은 각종 질환의 재활 및 예방,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환자들의 몸 상태에 따른 맞춤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운동선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순혁 센터장 인터뷰>



'과학적인 운동처방을 통한 웰빙(Well Being)실현' 과 '체계적인 운동 선수의 관리' 이것이 스포츠의학센터의 목표입니다. '환자 맞춤형 치료' 를 통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학적으로 걷기 효과는 이미 입증된 상태입니다. 주

4-5회 30분 이상 걸으면 심장질환과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37%나 낮아진다는 영국 국립심장포럼의 연구결과가 있고, 당뇨병 환자가 1주일에 최소 2시간씩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사망 위험이 39% 낮아지기도 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신체 활동(physical activity)을 늘리는 것입니다.

또한 고려대학교는 우리나라의 운동선수들의 요람입니다. 다양한 종목에서 향후 대한민국의 스포츠를 이끌어갈 유망한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운동 및 치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스포츠의학센터에서는 연령별, 질환별로 특화된 개인별 맞춤 치료를 제공하여 환자 개개인의 과학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병원의 여러 클리닉과 상호 협력함으로써 환자분들의 건강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문의 | 고려대 안암병원 스포츠의학센터 02)920-6740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스포츠의학센터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SPORTS MEDICAL CENTER



사진 영상동아리 KMP

디지털카메라의 폭넓은 보급으로, 사진에 대한 관심 폭발적으로 이어져...




사진 영상동아리 KMP 회원들이 촬영한 사진들

디지털카메라의 보급으로 일반인들의 사진에 대한 관심은 그야말로 폭발적이 됐다. 이제, 핸드백이나 책가방, 혹은 호주머니에 디카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는 것이 상식이다. 휴대폰에 사진촬영 기능이 없으면 팔리지 않을 정도다. 디카의 확산은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의 내용을 다채롭게 꾸며주고 그 속의 주인공을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어쨌건, 개인 PR시대에 있어 디카는 필수품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일까... 그런 상황에서 의료원 동아리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동호회가 있으니 다름 아닌, '사진 영상동아리 KMP(단장 강용길, 핵의학과). 이 동호회는 2005년 2월 26일에 개설된 이후 만 4년간 320명의 회원을 확보하며 맹활약 하고 있다. 의료원 교직원 12명 중 1명은 이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는 셈이다.

그간 KMP는 사진출사 행사 등을 통해 동호회 활동을 활발히 하는 한편, 전시회도 개최했다. 사진은 이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는 에너지와 같은 존재다. 동호회원들은 사실 가족과 같다. 주말이면 틈틈이 모여 카메라로 각각의 눈에 비친 세상을 본다. 회사생활을 즐겁게 하는 데도 인맥은 필요하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한 시대에 네트워크 지수(NO)를 높이는 건 어떻게 보면 필수다. 동호회는 단순히 취미를 공유하는 측면을 뛰어넘어 업무활성화 및

공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사이버시대에 포탈사이트 동호회 커뮤니티는 회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들은 앞서거나 뒤쳐거나 좋은 정보를 업로드하며 서로 공유한다. 의료원 포탈사이트 뿐만 아니라, 싸이월드, 온라인 카페 등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네트워킹으로 누구보다 관계가 돈독해져 있기도 하다.

'사진 영상동아리 KMP'의 단장을 맡고 있는 안암병원 강용길 방사선사는 사실 영상매체 분야에선 꽤 이름난 전문가로 통한다. 사진 뿐만 아니라 동영상촬영 및 편집에도 능하다. 안암병원 원내기자단도 이끌고 있는 강 단장은 요즘 하루 24시간이 모자랐다. 2월 16일부터 사흘간 '디지털 사진 공개강좌' 를 개최했다. 이 교육에 참가하기위해 의료원 포탈사이트에 예약자 만 100여명이 넘었다. 안암병원에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첫째날, 디지털 사진 일반강좌(16일, 18:30~20시, 강사 이오봉, 대회의실) ▲둘째날, DSLR 카메라 취급방법/실내조명/앨범제작위한 포토샵다루기(17일, 18:30~20시, 강사 김진한, 중회의실) ▲셋째날, 중급완성실전과정 : 압축앨범제작하기, 돌, 백일, 행사앨범 제작 등(18:30~20:30분, 강사 김진한, 소회의실)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사진영상 동아리 강용길 단장이 추천하는 아마추어 사진가의 자세 10가지

1. 항상 카메라가 준비되어야 한다.

순간적인 장면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사진이 된다.

2. 좀더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면 산만함을 피할 수 있고 불필요한 배경을 제거할 수 있으며 대상물을 더욱 명확하게 해준다.

3.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라.

사람들을 찍을 때, 그들을 바쁘게 만들라. 그러면 훨씬 생동감이 있는 사진이 될 것이다.

4. 단순한 배경을 이용하라.

단순한 배경은 대상물에 집중하도록 해주고 훨씬 명확하고 강력한 사진이 되도록 해준다.

5. 물체를 중앙에 놓지마라.

대상을 중앙에서 비껴놓으면 구도가 더욱 역동적이 되고 더욱 눈길을 끌게된다.

6. 경치에 전경을 포함시켜라.

사진을 찍을때 경치에 전경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앞쪽의 요소들이 거리감, 깊이, 부피감을 더해준다.

7. 좋은 조명을 찾아라.

적절한 조명은 필름을 노출시키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좋은 조명은 당신의 사진을 훨씬 흥미롭고, 색상을 화려하게 만들어 준다.

8. 카메라를 안정되게 잡아라.

카메라를 안정되게 잡고 있는 것은 선명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9. 플래시를 사용하라.

빛이 더 필요할 때 빛을 제공하며 정지된 동작을 만들어 선명한 사진이 되도록 해줄것이다.

10. 적절한 필름을 선택하라.

필름카메라 라면, 카메라의 특성을 파악하고 조건에 맞는 필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왼쪽부터 : 원내기자 박미영, 강용길, 백화연

원내기자단 - 활력 불어넣는 병원의 오아시스


열정과 끼로 뭉친, 원내기자의 활동영역 증대 소식 배달부 뛰어 넘어 병원 발전위한 전략적 제안하기도...

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행정직, 약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일반업무직 등 구성원들은 저마다의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안암병원은 교직원만해도 1,900여명에 달하는 대형 의료기관 기관이다. 병원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들이 있으니 다름아닌 원내기자단. 안암병원 원내기자단은 각 직종을 망라하는 7명의 정예요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소속팀에서 자기의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 짬을 내어 원내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기사를 작성해 포탈사이트나 뉴스레터에 보도 하는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렇게 활동하기 까지 원내기자단은 10주에 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취재 및 기사(단신, 인터뷰기사, 탐방기사, 기획기사)작성 ▲디지털카메라 촬영 및 편집 (이론 및 실습) ▲

포토샵 이미지편집과 HTML 기초(이론 및 실습) ▲사례로 배우는 한글2000 문서편집 ▲ 포탈사이트 사용자교육 및 과제기사 제출 등의 특별훈련이 그것이다.

병원조직은 특유의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철저한 의료정신과 뛰어난 조직력을 갖추는 것을 병원운영의 중요한 요체로 꼽는다. 대형의료기관은 그 업무의 특성상 전문가적 역량과 함께 부서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원내기자단은 각 부서와 인물 등의 소식을 전파하는 메신저의 역할 뿐만아니라, 병원의 개선점을 찾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역할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원내기자단은 원내에서 전문지식과 스킬을 바탕으로 부서와 부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유기적인 체계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뤄내도록 돕는 조인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포탈사이트와 뉴스레터제작(뉴스레터편집위원회에

참석해 병원신문의 편집 및 제작에 직접 참여 한다)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내부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오피니언 리더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저마다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동분서주 하는 '원내기자단', 그들이 있어 병원은 정보에 목마르지 않다. 그들은 진정한 활력을 불어넣는 병원의 '오아시스' 다. 

제보처 (안암병원 원내기자단)

- 강용길 (핵의학과, 5547) koreatzp@korea.ac.kr
- 류한성 (안전요원실, 5110) ryuhanse@teachiworld.com
- 백화연 (영상의학과, 5587) whitebhh@nate.com
- 최세진 (원무팀, 5989) seajin69@hanmail.net
- 최영자 (CCU, 5944) icpyj@hanmail.net
- 박미영 (영상의학과, 5174) parkotel@yahoo.co.kr
- 이민이 (간호부, 5877) dmdmmin@kumc.or.kr

불타는 모교사랑 세계最高 의대교우회 ‘제3회 高大의대의 밤’ 개최

고대의대교우회(회장 유광사)는 지난 1월 17일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서울 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고대의대 동문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즐거운 만남 우리는 하나’ 라는 주제로 ‘제3회 고대의대의 밤’ 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교우회, 의대 및 병원발전 돕는 조력자 新의학관 건립 등 제2의 도약 다짐 신임 교우회장, 문영목 교수 선출



이날 행사는 고대의대교우회(회장 유광사)가 주최하고,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오동주)과 고대의대(학장 나홍식)가 공동 후원했으며, 주최측이 준비한 600석을 훨씬 넘는 8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는 유광사 교우회장, 천신일 고대교우회장, 대회장 맡은 대한의사협회 유희탁 의장, 김재정 前의협회장, 이기수 고려대학교 총장, 오동주 의무부총장, 나홍식 의대학장을 비롯한 원내 및 개원 동문 등 제3회 졸업생부터 신입교우들까지 모든 기수의 동문이 모여 뜨거운 열기를 과시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1부행사로 ▲연수강좌(대장 및 직장암 로봇수술의 현재와 미래, 김선한 교수, 고대 안암병원 대장항문외과) 2부 행사로 ▲교우회 총회가 진행됐으며, 3부 행사에서는 ▲대회장 개회선언 ▲교우회장 환영사 ▲총장 축사 ▲총교우회장 축사 ▲의무부총장 축사 ▲의과대학장 축사 ▲시상식 ▲졸업 50주년 축하(17회) 및 기금전달 ▲29대 신임 교우회장 인사 ▲만남의 장(만찬 및 미니콘서트) 등의 시간을 가졌다. 1부, 연수강좌에서는 지난해 10월 메이요클리닉에 이어 올해 1월 13일 클리브랜드클리닉에 직장암 ‘로봇수술라이브 서저리’ 를 실시해 세계의 주목을 끈 ‘로봇서전’ 김선한 교수가 로봇수술을 주제로한 연계를 발표해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2부, 교우회 총회에서는, 문영목 교수(서울시의사회장, 28회)가 제 29대 신임교우회장으로 선출됐다. 3부, ‘고대의대의 밤’ 본 행사시 열린 시상식에서는 남경애(前 대한산부인과학회 부회장, 18회)교우와, 김재정(前 의사협회회장, 22회)교우가 ‘자랑스런 호의상’ 을 수상했으며, 이상학(고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40회)교수와 박성혜(서울대 병리학교실, 43회)교수가 고려의대 교우회를 빛낸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고의의학상’ 을 받았다. 또한, 17회 동기회는 졸업 50주년 기념으로 5천만원의 의학발전기금을 모교에 기탁했다. 이후 열린 축하행사에서는 고대의대 댄스동아리 및 오케스트라 공연과 교우들의 열창 등이 진행되어 축제 분위기 속에 제 3회 고대의대 총동문 행사를 마감했다.

유광사 교우회장, 천신일 총교우회장, 이기수 총장, 오동주 의무부총장 등 의대와 교우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 기원해



유광사 의대교우회장



천신일 고대교우회장

이날 유광사 교우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즐거운 만남 우리는 하나’ 라는 슬로건 아래 고대의대 교우들의 한마당 축제의 장인 고대의대의 밤을 기축년 시작과 함께 전 교우들의 희망을

담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교우회장으로 국민건강과 의학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의대교우들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오늘의 잔치를 통해 하나 됨을 다시한 번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천신일 교우회장은 “고대 교우회의 이름으로 오늘 고대의대의 밤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그간 의대와 각 병원이 크게 발전한 것은 의대 교우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헌신 덕분이 아니었나 생각어든다. 그 열정과 패기는 우리 앞에 놓인 많은 과제들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사의 대회장을 맡은 대한의사협회 유희탁 의장은 “고대의대의 위상을 한 단계 높여야겠다는 비장한 마음이 앞선다” 며 “발전적인 변화와 개혁, 하나된 단결과 발상의 전환으로 고대의대의 발전을 위해 교우들의 뜨거운 모교사랑과 헌신적인 열정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이기수 총장



오동주 의무부총장



나홍식 학장


이기수 총장은 축사를 통해 “고대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고대의대의 밤 행사를 전 고대 가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한다. 고대의대와 의대교우회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며 “고대의대와 의료원은 교육과 연구 진로 뿐만 아니라 다가올 의료산업화 시대의 거점 의료기관이자 최고의 의료인 양성 교육시설로 옹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고 말했다. 오동주 의무부총장은 “고려대의료원은 최근, 절박한 의료환경과 산재한 대외약재 속에서도 전년대비 일일 외래 환자수가 20%가량 급증 하는 등 각종 지표에서 사상 최대의 경영실적을 올렸다” 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의료원은 과거와는 비교 할 수 없는 규모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인 변화를 이룩해 낼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노력은 의료원에 몸 담고 있는 구성원 뿐만 아니라 고대의대 모든 교우들의 염원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고 강조했다. 한편, 나홍식 의대학장은 “고대의대가 배출한 7천여명의 교우들은 70여년 동안 대한민국의 의료를 선도하는 주역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제, 고대의대는 Global KU Frontier Spirit 이라는 슬로건에 발 맞추어 선진국제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신 의학관 건립기금 모금사업 등을 위해 전 교우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 말했다.



2009 신입간호사 교육 실시




고려대 의료원(의무부총장 오동주)은 2월 4일부터 6일까지 고대 경영대 학우강당에서 '2009년도 신입간호사 연수 교육' 을 실시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320여명의 신입간호사들은

3일만에 걸쳐 의료원 현황 및 복무규정을 비롯해 기본간호술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예비 간호사들의 조직에 대한 적응력과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오동주 의무부총장의 '신입간호사에게 전하는 CEO 특강' 을 시작으로 선 경 의무기획처장의 '의료원 현황 및 발전방안' , 각 병원 간호부장의 '간호부 소개 및 의료원 복무규정' , '환자 권리보호와 간호윤리' , '대한간호협회 소개' 등의 다채로운 교육이 실시됐다. 특히, 이날 오동주 의무부총장은 특강을 통해 "간호사는 병원에서 의료진과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향후, 병동 등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할 때 시시각각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해서 고대의료원의 핵심인재이자 환자들의 수호천사로 성장해 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고 강조했다. 교육을 마친 한 예비간호사는 "간호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매 순간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친절과 실력을 두루 갖춘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0여명의 신입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제 2차 교육은 3월 4일부터 6일까지 안암, 구로, 안산 각 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랑과 소망의 목소리... 낭독의 발견



의료원은 2월 4일 오후 6시 30분 안암병원 건강검진센터 홀에서 '책 함께읽자' 낭독회를 열었다. 이날 낭독회에서는 ▲ '독립극장' 원영에 대표가 랜디포시(Randy Pausch)의 '마지막 강의


(The Last Lecture)'를,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교수가 조지훈 시인의 '병(病) 에게' ,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 를 ▲극금자 시인은 '아름다운 이별' 등을 낭독했다. 이날 낭독 대표서적인 '마지막 강의' 의 저자 랜디포시 교수는 책장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은 후 지난 2007년 9월 카네기멜론대학에서 열렸던 '마지막 강의' 동영상 전 세계로 퍼져 신드롬을 일으킨 후 1,000만명 이상이 동영상 시청을 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은바 있다. '마지막 강의' 원고를 원영에 써가 낭독해 나가자 행사장소에 모인 암 환자, 출산을 앞둔 산모, 소아환아 및 그 가족 등 30여명은 눈시울을 붉히는 등 낭독회 내내 훈훈하고 잔잔한 감동의 물결이 흘렀다. 특히, 김상열(여, 80)할머니는 행사가 시작하기 한 시간 전에 낭독회 장소로 '책 함께읽자' 가 보도된 조선일보 2월 2일자 특집호를 들고 찾아와 "멀리 일산에서 낭독회를 연다 길래 병원을 물어 물어 찾아왔다. 출가한 자식들과 따로 살고 있어 적적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 가슴 한 칸에 무어라 말 못할 뜨거운 것을 느끼고 돌아간다" 며 낭독회 참가에 대한 느낌을 술회했다. 

고대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김영일 사무국장 환경부장관 표창



고려대 안암병원(원장 손창성) 환경성질환연구센터(센터장 정지태·소아청소년과 교수) 김영일 사무국장이 최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센터 연구교수이기도 한 김영일 사무국장은 소아 천식을 비롯한 환경성질환 퇴치를 위한 질병 홍보와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영일 사무국장이 몸담아온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는 지난 2007년 9월 개설된 국가지정센터로, 소아 천식 등 각종 환경성질환으로부터 국


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실내의 공기 질 관리 등 유해요인에 대한 국가 보건 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고자 설립됐다.

현재, 소아청소년과, 정신과, 예방의학교실, 생화학교실, 환경의학연구소 등 안암병원 및 의과대학 교수진과 연구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환경성 질환과 환경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에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도 맑은 숨 캠프, 환경관련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소아 천식 예방과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편,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는 '환경과 인간' 의 관계를 의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최초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는 2007년 9월 고려대 안암병원을 비롯한 삼성 서울병원, 단국대 의료원 3개 병원을 지정했으며, 이후 이들 의료기관은 관련분야 연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선경 교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선출




공심장장치(H-VAD)'를 개발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정회원에 선출됐다. 선 교수는 고려대 의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구루메 의과대학 강사 및 미국 인디애나대학 연구전임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고려대학교 의무기획처장, 한국인공장기센터장, 고려대학교 BK21 의생명사업단 참여교수, 대통령

홍부외과 선경(53, 宣卿) 교수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으로 선출됐다. 선경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체외 휴대용 인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R&D전문위원, 보건의료기술 정책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다. 선경교수는 지난 1월 29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6차 정기총회에서 정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앞으로 의학연구 및 교육에 관련한 정책수립, 건의, 평가 및 자문을 구하며, 의학의 장기 연구기획, 의학관련 학술상, 국제교류 등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2004년 설립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National Academy of Medicine of Korea)은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의 최고 석학을 구성원으로 한국 의학의 지속적인 진흥 창달과 선진화를 선도해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해 온 단체다. 의학한림원의 회원 선출은 엄격하기로 유명하며 의학의 최고 석학들만 정회원 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현재 약 260여명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의료원, 미국 달라스한인회와 '진료협약 체결'



의료원은 2월 11일 오전 10시30분 의무부총장실에서 오동주 의무부총장, 신경 의무기획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달라스한인회(회장 김호)와 해외 교민의 치료를 돕기 위한 '진료협약 체결식' 을 진행했다. 미국내는 물론 한국에서도 달라스 한인회원들에게 빠르고 저렴한 의료혜택이 제공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결된 이번 협약식에는 달라스한인회 김 호 회장이 직접 고려대 의료원을 방문해 이뤄졌다. 김호 회장은 "미국 내 거주하고 있는 교민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언어와 비용 등의 문제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고국에서 건강검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진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고 말했다. 이에, 오동주 부총장은 "그간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큰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고려대의료원은 최고의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시설 등의 세계 정상급 의료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어, 교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다" 고 답했다. 

간호부 64병동, 제24회 임상간호학술대회 장려상 수상




상논문을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발표논문은 실제 외과병동 간호사(21명)가 복부 수술을 받은 환자(32명)를 대상으로 수술통증 관리 교육이 통증관리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것으로, 환자의 통증 감소와 통증조절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64병동 안지혜 간호사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외과환자에서 수술 후 통증관리는 수술간호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었다" 라고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인 통증관리 교육으로 간호역량 향상은 물론 환자들의 보다 빠른 회복을 돕고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안암병원 간호부(부장 장연희) 64병동은 2월 3일 서울대 간호대학 강당에서 열린 제 24회 병원간호사회 임상간호학술대회에서 『간호사와 환자에게 제공된 수술통증관리 교육이 수술 후 통증관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임


고려대의료원, (주)나무엑터스로부터 일천만원 전달받아



의료원은 2월 11일 11시 의무부총장실에서 (주)나무엑터스(김동식 대표)로부터 의료비 일천만원을 전달받았다. 향후, 이 기금은 고려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에서 치료 중인 18세 미만 환자 중 경제적 문제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환자들에게 의료비로 쓰일 예정이다. (주)나무엑터스는 의료원에 매년 꾸준한

후원금을 전달해 왔으며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이어 가고 있다. 김동식 대표는 "심각한 경기침체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 환자들에게 이번 의료비가 소중하게 쓰이기를 바란다. 함께 일하는 배우 문근영씨는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꾸준한 사랑 실천을 통해 선행을 베풀고 있는 것처럼 회사도 작지만 소중한 선행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의료원은 얼마 전 드라마 촬영 도중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주)나무엑터스 소속배우인 문근영씨의 신속한 치료를 돕는 등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다져오고 있다.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 보내야만 하는 가슴시린 마음, 그를 노래할 수 있어 행복하다

국금자(59) 시인은 남편(윤규남, 70)을 떠나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아픈 시간을 보냈다. 남편은 평생 나라에 헌신한 경찰공무원으로 잔병 없이 건강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찾아온 불청객 '급성골수성백혈병'. 그녀는 절망했다. 남편은 지난해 5월 백혈병 진단 후 병원을 떠날 날이 없었다. 사실, 부부는 몇 번 집을 오가긴 했지만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다. 국금자 시인은 지난, 2월 4일 오후 7시 안암병원 건강검진센터 홀에서 개최된 '책 함께읽자' 낭독회에서 남편을 떠나 보내야 한다는 아픔을 시로 표현했다. 시인 이기 전에 '한 남자를 지독히 사랑한 한 여자의 시가 낭독되자, 행사장소에 모인 암 환자, 출산을 앞둔 산모, 소아환아 및 그 가족 등은 조용히 숨죽여 흐느껴야만 했다. 그러지 않고선 견딜 수 없었다. 그녀의 가슴시린 애절함이 '바이러스' 처럼 독하게, 아주 독하게 참석자들을 '슬픔'으로 감염시키는 순간이었다. 



시인 국금자

■ 약력

1948년 전남 함평출생
좋은문학 詩부문 신인상 등단
좋은문학 작가회 이사
한국문인협회 회원
민들레 동인

■ 저서

'지아비와 지어미'
'절반의 사랑이 머무는 곳'

■ 공저
'별을 찾는 이 행복하다'
'경계'

독자코너

아름다운 이별

국금자

사월이 오면
인연의 고리로 맺어진지 사십일년
그 고리를 풀어야 한다는 조바심에
발을 구르는 중환자실
빙산의 편린들이 날을 세워 가슴을 짓누른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한다는 절망에
가슴 시리다는 말을 절감하며
서로를 갈망하는 애타는 몸짓
목마른 안타까운 시간들이
시위를 떠나 흘러가고 있다

선잠 꿈길에서 놀라 깨어나
행여 뺨을 대어 귀 기울이며
안도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항암에 빠지는 머리카락 쓸어주며
시리 디 시린 가슴에 품어 안는다

사랑과 미움의 세월
그래도 사랑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던
소중한 기억들을 끌어안고 가야하는
내게 있어 당신은
단 하나의 사랑이었어라

한번은 가야하는 길
먼저가고 나중에 가는 것 일뿐
보내야 하는 서러움 안고
후회하지 않을 끝없는 사랑으로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 한다



통영여행, 알짜 코스를 아시나요?

마라도까지 보인다!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는 통영여행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행의 참맛 중 하나다. 해발 461m의 통영 미륵산 정

상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1,975m라는 국내 최장의 길이를 자랑한다. 8인승 곤돌라에 올라타면 발 아래로 내려다보이고 미륵산 모습과 창 밖으로 펼쳐진 한려수도의 풍경은 묵은 체증까지 내려주는 소화제 같다. 미륵산 정상에 도착하면 크고 작은 무인도와 유인도, 통영항과 이순신 장군의 구국 혼이 서린 한산대첩지, 멀리 마라도까지 볼 수 있다. 특히 편안한 느낌의 데크와 전지방명록, 전자엽서, UCC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통영여행의 추억을 더해준다.

왕복요금 : 대인 8,000원 (편도 6,000원)
소인 4,500원 (편도 4,000원)

문의 : 통영관광개발공사
(055-649-3804~5) www.ttdc.co.kr

발품팔아 알뜰하게 여행하는 통영 시내 코스 [향토역사관, 세병관, 충렬사, 해저터널]



선사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통영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다. 임진왜란과 통제영산하 12공방에 대한 자료

를 볼 수 있다. 또 공방이 발달할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 지리적 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다. 한편 가수 조용필이 불러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발표되기 전 1970년 가수 김해일이 발표한 '돌아와요 충무항에'란 곡에 관한 전시도 눈에 띈다. LP판과 함께 두 곡의 노래가사가 비교 전시되어 흥미를 끈다. 세병관은 시티투어코스와 통영여행에서 빠지지 않고 방문하게 되는 코스다. 17세기 초 건립(1604년)된 목조단층 건물로 경북경희회루(국보 제 224호), 여수진

남관(국보 제 304호)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물에 속한다. 세병관은 조선 선조 37년에 완공한 통제영의 중심 건물로 창건 후 약 200년 동안 경상, 전라, 충청도 수군을 총 지휘했던 곳이다. 보수를 거친 했으나 남해를 바라보고 선 위풍당당한 모습은 변함이 없다. 입장료는 200원이다.



충렬사는 세병관이 지어진 2년 후 조선 선조 39년에 지어졌다. 제7통제사 이운룡이 왕명으로 이순신 장군의 위

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사당이다. 삼도수군통제사로 임진왜란 중에 순국한 이순신 장군의 유구는 최초로 관음포에 올려진 후 이곳 충렬사에 안치되었고 고급금을 거쳐 충청남도 아산 현충사로 운구되었다고 한다. 어른은 1,000원, 청소년은 500원, 어린이는 300원의 입장료가 있다. '통영 해저터널'은 1932년에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동양 최초의 해저터널이다. 통영육지(당동)와 미륵도를 잇는 터널로 충무교와 통영대교가 개통되면서 차량통행을 금하고 있다. 현재는 자전거와 도보로 시민들이 오가는 터널이다. 양쪽으로 바닷물을 막고 바닥을 파서 뚫은 터널로 길이 483m, 너비 5m, 높이 3.5m에 이른다. 해저터널이라곤 하지만 바닷속은 보이지 않고 콘크리트 벽이 이어져 지하도를 연상케 한다.

출처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http://korean.visitkorea.or.kr>
풍경이 있는 여행 조회

우리병원 동호회, 최고예요!

다양한 부서와 여러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 은 그 특성상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려대 안암병원은 교직원들 간의 활발한 교류가 병원의 활기찬 분위기를 만든다는 신념 아래 직종·직급 간의 벽을 허물고 함께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등 동호회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의료원을 대표하는 동호회로는 레저동호회(KLC), 불자회, 사진영상동호회(KMP) 등이 있으며 안암, 안산, 구로 병원 교직원들과 함께 참여하는 동호회 이외에도 각 병원 자체적으로도 꾸준한 동호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은 동호회 활동 이후 대인 관계가 넓어져 타 병원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업무에도 간접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동호회 활동은 또한, 업무상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동호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동료들과의 사이도 긴밀해지는 장점이 있다. 이렇다 보니, 업무도 신바람나게 처리하게 되고,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 가정생활에도 충실하게 돼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동호회원들은 전한다.

의료원을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물들이기 위해 적극적인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동호회들은 건 강한 직장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레저동호회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동호회로 지난 1월에는 강원 태백 하이원 스키장으로 2박 3일 동안 스키캠프를 다녀 왔다.

사진영상동호회는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야외로 출사를 나가며 친목을 다진다. 특히 사진영상동호회는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사진 강좌를 개최했다. 사진 촬영을 어렵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사진에 대한 관심이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사진을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사진영상동호회의 노력이 돋보인다.

뿐만 아니라, 학술자료와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최소침습수술연구회', '안암병원학술포럼', 봉사 동아리인 '고대의료원 나눔과봉사', 스포츠 동호회인 '축구회', '야구동호회', '볼링클럽', '테니스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동호회다. 또한, 업무 능력 함양을 위한 '파워포인트동호회', '일본어 동호회'도 눈여겨 볼 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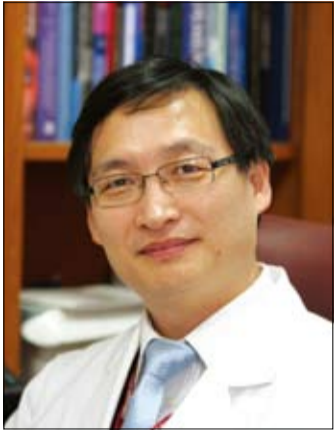
의료원 및 안암병원 주요 동호회 소개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portal.kumc.or.kr에서 가입가능

● 고대의료원 원내기자	● 고대안암 두리회
● 고려대학교 의료원 산우회	● 고은회
● 사진 영상동아리 KMP	● 파워포인트동호회
● KLC-고대의료원레저동호회	● KUMC 일본어동호회
● 고려대학교 의료원 직원 테니스회	● 안암병원 베스트원 볼링클럽
● 고대의료원 축구회	● 안암의기상조회
● 고대의료원 야구동호회	● 안암병원일심회
● 루어낙시 클럽	● 안암병원 학술포럼
● 고대병원 MTB 두동글	● 고대의료원 불자회
● 고대의료원 나눔과 봉사	● 고려대학교의료원 전공의협의회
● 고려대학교최소침습수술연구회	

닌텐도와 고령화 사회의 지혜

생명력 넘치는 총체적 두뇌능력의 발현이 중요해...



글 | 신경과 박건우 교수 (기획실장)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본의 닌텐도 게임기를 언급한 것을 계기로 한국경제신문의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기사를 요약하면, 닌텐도가 세계적인 게임업체로 성공했지만 원래는 100여 년 전부터 화투로 시작해


렇게 쌓이고 쌓인 지식이 창의적 발상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철저한 도제 방식’, ‘경륜에서 우러난 노하우’ 그리고 ‘쌓이고 쌓인 지식’ 이라는 단어가 나를 흥분케 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나는 이 모든 단어를 아우르는 말을 한마디로 ‘지혜’ 라고 정의코자 한다. 원래 사전적 의미의 지혜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고 삶의 질을 증진 시키며, 소속된 사회를 순방향으로 이끌게 하는 고차원적 인간 능력이라 정의한다. 신경과학적 측면에서 지혜란, 인지 기능과 감정 그리고 영성을 아우르는 총체적 두뇌능력으로, 특히 통합능력, 직관력 및 창의성에 가치를 두는 신경체계를 말하고, 생명력이 있어 후대에 전수 되는 것이다.

왜 지혜가 이 시점에서 주목 받아야 되는 가는 현재의 지식사회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그 답이 나온다. 현재 지식사회의 가치는 분석적이며, 기억저장 능력의 평가에 있으나, 이러한 논리라면 풍부한 지식은 인간의 뇌보다 컴퓨터에 저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많이 아는 것이 미덕이라는 개념에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즉 정보의 홍수, 범람, 과중한 부하등이 핵심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학교 성적이 인생성과 관련이 적고, 매 10년 마다 인류 전체의 아이큐가 9점씩 증가했지만 세상 살기가 더 윤택해 졌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 정보의 혼란 속에 비판은 많으나 대안 제시가 없고, 악플로 인한 피해는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보다

진화된 지혜사회가 필요하다.

기사에 나온 ‘철저한 도제 방식’, ‘경륜에서 우러난 노하우’ 그리고 ‘쌓이고 쌓인 지식’ 이란, 정보의 양을 늘리기보다 정보의 운용 방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른 말로 표현 하면,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나 교환이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가치를 부여하는 직관력, 지식에 생명을 부여하는 창의성, 지식을 지혜로 바꿀 수 있는 통합능력, 우선순위와 취사선택을 위한 결정능력,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실행능력, 그리고 가치의 무게를 재고, 치우침이 없게 하는 균형능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 능력은 지혜를 존중하는 사회에서만 충분히 발휘 될 것이다. 네이버 지식인을 잘 검색하는 자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체득된 경험이 중시 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보로 확장 지식인이 아니라 오랜 경륜에서 나오는 지혜인이 이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다. 컴퓨터를 다루는 젊은이들만큼 삶의 지혜를 몸으로 간직한 노인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닌텐도게임기의 목적은 온가족이 즐기는 게임이다. 온가족이란 젊은이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60대에서 90대까지의 지혜로운 노인도 즐긴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닌텐도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의 해법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지식보다는 지혜를 존중하고, 노인이 더 이상 지식습득의 낙오자가 되지 않고 지혜인으로써 인정 받는 사회를 꿈꾸어 본다. 

만들던 회사였다는 것이다. 그 회사가 1983년 첫 게임기 ‘패미컴’을 출시, 게임업체로의 변신에 성공했고, 이후 일본 비디오게임 시장의 붕괴로 다시 위기감이 커지던 무렵, 2004년 11월 출시된 닌텐도DS는 하드웨어 경쟁 대신 창의성있는 게임방식과 내용으로 승부를 걸게 된다. 이 같은 발상의 전환으로 닌텐도는 여성 및 가족 위주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성공했고, 연이어 가정용게임기 ‘위(Wii)’의 출시로 일약 세계 최고의 게임 기업으로 떠오르게 되었다는 내용이였다. 과연 그 생명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기사를 더 살펴보면, 이와타 사토루 사장(50)을 포함해 경영진 6명 중 4명이 게임 개발자 출신이며, 20년 이상 게임만 개발해 온 40~50대의 ‘게임 장인(匠人)’에 의해 철저한 도제 방식으로 젊은 개발자들에게 경륜에서 우러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으며, 그

시큰시큰, 추워지면 심해지는 관절염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과 전문적 치료 병행해야 효과 있어



겨울은 빠르게 변하는 기후 때문에 인체가 적응하기 부담스러운 계절이다. 겨울철 주의해야하는 대표적인 건강 문제들로는 추위 때문에 근육 및 관절의 경직과 혈관이 수축되어 생기는 관절염의 악화가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에게서 심하게 나타나는데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한파가 왔을 때는 엄청난 통증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겨울철에는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다.

▶ 관절염의 종류

특별히 다친 기억 없이 무릎이 붓고 통증이 있다면 관절염일 가능성이 많다. 증상이 비교적 장기간인 만성 관절염으로는 퇴행성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결핵성 관절염, 통풍 등이 있다. 반면에 급성으로는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병의 진행이 빠르고 심한 통증과 발열을 동반한다. 퇴행성 관절


염은 관절질환 중 가장 흔한 것으로 변성 관절염, 노인성 관절염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일종의 뼈의 말단 부위에 연결된 푸르스름한 빛의 하얗고 반짝이면서 미끄러운 물질인 관절 연골의 변화로 인해서 관절연골의 매끄러운 면이 파괴되어 울퉁불퉁한 면을 이루거나 또는 체중을 많이 받는 부위에 관절 연골이 파괴되어 통증과 불편을 겪는 질환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과 는 매우 다양하나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지는 경우를 반복하고 약 15% 정도는 한 번 앓은 후 재발이 없이 완치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류마티스 관절염은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경과가 좋지 않아 관절 기능에 장애가 나타나고, 더 오래되면 관절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됨은 물론 치료 시기가 늦어진 경우는 심장, 폐 등에도 침범하여 사망에 까지 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다.

▲관절염의 치료를 위해

각각의 증상 및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약물요법, 물리치료, 수술 등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최근에는 의료 공학의 발달에 힘입어 인공관절을 비롯하여 다양한 치료법이 시행되고 있다. 초기 관절염은 관절연골 재생주사가 적당하다. 초기 때 관절 연골 재생주사를 5~10회 맞으면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염증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연골 변성도 막을 수 있다. 초기를 지나 중기

가 되면 관절경수술을 선택할 수 있다. 관절경 수술은 피부를 1cm 미만의 작은 크기로 절개해 두 개의 관절경을 넣어 검사와 함께 수술까지 할 수 있다. 다른 부위 손상을 적게 해 흉터가 거의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 부분적인 연골 손상이라면 ‘반치환술’을 시도할 수 있다. 인공슬관절 전치환술보다 절개 부위가 작아 출혈이 적고 감염 위험성이 적으며 뼈 손상도 많지 않다. 수술 후 2~3일이면 일상 활동을 할 수 있다. 문제의 부위만 치료하기 때문에 입원 기간도 짧다. 마지막으로 말기에 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는 인공관절수술이 있다. 인공관절수술은 관절염으로 손상된 연골을 잡아내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치료법이다.

▲겨울철 관절 예방을 위해

추운 겨울이라고 꼼짝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에 좋지 않으므로 몸을 잘 보온한 상태로 천천히 산책을 하거나 실내에서도 수시로 몸을 쭉쭉 늘여주는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것이 좋다. 자전거타기와 수영 에어로빅등이 무난한 겨울철 관절 강화운동이며 일단 관절 주변의 인대와 근육이 튼튼해지면 관절의 수고를 덜어주므로 통증도 경감되고 부상위험도 줄어든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진료시간표

* 선택진료 의사 | 대표번호·전화예약 1577-0083 | 인터넷 예약 http://anam.kumc.or.kr | 응급의료센터 02)920-5373 2009년 02월 17일 현재

과 별(진화)	의 사 명	오 전	오 후	전 문 진 료 과 목
소화기센터 3층 ☎6551	*류 호 상	화,목	화,목	간질환,위장관질환
	*김 창 덕	월,수,목	화	담석,체장질환
	*엄 순 호	월,수,금	수	간질환
	*전 훈 재	화,목,금	금	위장관질환
	*진 윤 태	수,금	화,수	위장관질환
	*서 연 석	월,목	월,금	간질환
	김 보 라	월	수,목	위장관질환
	권 용 대	화	금	담석,체장질환
	박 상 훈	월	월,금	위장관질환
	내과 3층 ☎54410	*김 형 규	월,금	화
*조 원 용	수,금	월,수	고혈압,신장질환	
*조 상 경	목	수,목	고혈압,신장질환	
*부 창 수	화	월,금	고혈압,신장질환	
우 영 석	월	목	고혈압,신장질환	
김 명 규	월	월,금	고혈압,신장질환	
감염	*김 민 자	화,수,금	수	감염질환,열병클리닉
*박 운 선	월,수	화,목	감염질환,열병클리닉	
손 장 옥			해외연수(2008.08~2009.08)	
김 정 연	목	월	감염질환,열병클리닉	
혈액	*김 병 수	수	화	빈혈,자반증(영)클리닉
이 세 련			빈혈,자반증(영)클리닉 (1/19~3/31 분만휴가)	
류마티스	*지 중 대	목,금	월,금	관절염,류마티스,루프스
*이 영 호	월,화,수	화,목	관절염,류마티스,루프스	
내과 일 반 의		월,금	월,금	내과질환
내분비센터 3층 ☎5421	*최 동 섭	화,목,금	목	내분비
*김 신 곤	월,수	월,수	내분비	
*김 희 영	수	월,화,수	내분비	
이 윤 정	월	월,목	내분비	
박 주 리	화,수,금		내분비	
암 센터 2층 ☎5555	*김 병 수	월,화,금	수	혈액암(백혈병,림프종,다발성골수종),골수이식,혈액질환
*김 일 홍	수	월,목	위암,소화기암,항암치료	
박 경 화	목	화,수,금	유방암,부인과암	
이 세 련			혈액암(1/19~3/31 분만휴가)	
방사선종양	*김 철 용	월,화,목,금	월,목	폐암,소화기암,두경부암,뇌종양,유방암
*박 영 제	화,수	월,화,수,금	부인암,비뇨기암,림프종,소아종양,육종	
소아청소년 정형외과	*이 광 철	화	화	소아혈액종양
*박 중 훈	목		종양	
심혈관 센터 4층 ☎6700	*심 환 주	월,목	화	고혈압,협심증,심부전,심장판막질환
*김 영 훈	월,화,금		부정맥,심박동기(월요일:초진만)	
*임 도 선	월,목	월	심혈관중재시술(초진클리닉:월-금 8:30-10:30)	
*박 희 남	화,목	화	부정맥,심박동기	
*홍 순 준	수,금	수	협심증,고지혈증,심혈관중재시술	
*박 성 미	화,금	수	고혈압,협심증,심부전,심장판막질환	
*최 종 일	수	월,수	부정맥,심박동기(초진수, 금오전 8:10)	
박 재 석	금	목	심장질환	
김 용 현	금	목	심장질환	
*안 철 민	월	목,금	협심증,고혈압,심혈관중재시술	
장 진 근	수	월	심장질환	
곽 재 진	수		심장질환	
흉부	*선 경		심장,혈관외과,인공심장	
*손 호 성	월	월	대동맥,관상동맥,말초혈관질환	
소아	*손 창 성	월	월	소아심장클리닉
호흡기 센터 2층 ☎5436	*유 세 화	월,수,목	화,목	호흡기,폐암,결핵,천식,만성폐쇄성질환
*인 광 호	화,목	월,목	호흡기,폐암,결핵,천식,만성폐쇄성질환	
*이 상 업	월,금	화,수	호흡기,폐암,결핵,천식,만성폐쇄성질환	
*강 은 해	화	월,목,금	호흡기,중환자의학,폐렴	
이 은 주	화	수,금	호흡기질환	
하 은 실	수	화	호흡기질환	
홍부	*김 광 택	화	목	폐,기관지,식도외과,다한증,하지정맥류(로봇수술)
*선 경	목	월	심장,혈관외과,인공심장	
*이 성 호	월,수	월	흉곽기형,폐,식도질환,하지정맥류(로봇수술)	
*손 호 성	금	월	대동맥,관상동맥,말초혈관질환(월/수)	
*강 문 철	화,수	화,수	일반흉부질환	
손 국 회	금	금	일반흉부질환	
위장관 3층 ☎5401	*김 종 석	수	월	위암,상부위장관 질환
*박 성 수	화	목	위암,상부위장관 질환(로봇수술)	
간담체	*김 영 철	화	목	간,담도,체장질환
*서 성 옥	월	수	간,담도,체장질환	
김 정 윤	금	화	간,담도,체장질환	
대장항문	*김 선 한	금	수	대장,직장,항문질환(로봇수술)
*김 진 진	목	화	대장,직장,항문질환(로봇수술)	
최 동 진	목	월	대장,직장,항문질환	
우 시 옥	화	금	대장,직장,항문질환	
이식외과	박 진 안	월	월	장기이식(신장,간,체장),혈관질환,하지정맥류,당뇨족
소아외과	부 윤 정	수	금	소아외과,탈장클리닉
유방내 분비외 과 2층 ☎6670	*배 정 원	월,화,목	월,수	유방암,갑상선암
*이 은 숙	수	월,수	유방암 및 유방질환,유방암성형수술	
김 훈 업	금	월,수	부신종양,갑상선암(로봇,내시경갑상선수술)	
정형외과 3층 ☎5430	*박 상 원	화	목	인공고관절,고관절
*채 인 정	목	화	무릎,인공무릎관절,관절경,척추	
*이 순 혁	수	월	소아정형외과,사지연장술,족부	
박 중 웅	수	수	수부,미세수술	
*한 승 범	월,금	금	인공슬관절,골절,외상학	
*박 중 훈	화,목	화	중양,외상	
*정 용 교	월,금	수	어깨,팔꿈치,스포츠의학	
*박 시 영	수	월,수	척추,외상	
이 대 회	화	목	무릎,스포츠의학	
신경외과 3층 ☎5550	*이 훈 갑	월	목	소아신경외과,뇌종양,뇌혈관질환
*서 중 근	화,목	수	척추질환,척추외상	
*정 용 구	수,목	화	뇌 및 척추종양,뇌혈관질환,두통	
*조 태 형	월,수	화	척추질환,척추외상	
*강 신 혁	금	목	뇌혈관질환,뇌종양,두부외상	
*신 일 영	화	월	뇌혈관질환,뇌기저부종양,두부외상,안면경련,삼차신경통	
박 경 재	금	금	두부외상,척추질환	
성형외과 3층 ☎5440	*박 철	월,금	월,금	귀성형
*안 덕 선	월	목	손저림증,화확박피	
*박 승 하	월	화	소아기형,레이저,미용성형,안면마비	
*이 병 일	월,수	수	미용성형,유방성형,미세수술,안면재건	
*김 덕 우	화	목	흉터성형,지방성형,두경부종양,레이저	
정 성 호	화,목	화,수,금	화상재건성형,수부외상,유창및하지손상	
일 반 의	월,수,목,금	화,수,금	일반재건성형	

과 별(진화)	의 사 명	오 전	오 후	전 문 진 료 과 목
소아청소년과 3층 ☎5650	*손 창 성	목	월	소아 심장,유전,신생아질환
*정 지 태	화,금	화	소아알레르기,호흡기천식,아토피(환경성질환)	
*이 광 철	월,목	목	소아 혈액종양,대사질환	
*박 상 회	화,수,금	수	소아 소화기,청소년	
*이 기 형	금	월,화,수	소아 내분비(저신장,갑상선,당뇨,비만)	
장 기 영	월		소아심장질환	
장 기 영	월,수	목,금	소아알레르기,호흡기천식,아토피(환경성질환)	
*이 장 훈	목,토	월,금	신생아질환(토-1,3주)	
최 익 선	수	수	소아알레르기,호흡기천식,아토피(1,3주)	
한 재 준	월,수,토		소아소화기질환(위장관질환,간질환,주기성구토증,토-2,4주)	
일 반 의	월-금	월-금	예방접종(오전10:30~11:30/오후14:30~15:30)	
소아클리닉	장 기 영 (월,오후):소아심장: 심장초음파검사			
한 재 준 (금,오후):소아 소화영양학				
이 광 철 (화,오후):소아 혈액종양				
박 상 회 (수,오후):청소년				
임 형 은 (매주 화:오후)소아 신장질환				
이 기 형 (수:오후)소아 내분비-저신장,당뇨,갑상선,소아비만				
은 소 회 (1,3주 목:오후)소아 신경생리				
안과 2층 ☎5520	*조 윤 애	월,목	월,목	사시,약시
*김 효 명	화,목		백내장,근시교정,각막	
오 재 령			해외연수(2008.2~2009.1)	
*유 정 권	금	월,화	녹내장,백내장	
*김 성 우	월,금	금	망막,유리체출혈	
서 영 우	월,화	금	사시,약시,안성형	
강 수 연	수	화,수	각막,백내장	
일 반 의	수	화,수,목,금	안과,일반학	
가정의학과 2층 ☎5104	*조 경 환	월,수,금	월,수	노인학,골다공증,만성질환,호스피스
*김 도 훈	수,목	화,금	건강증진,노인병,비만	
박 창 해	월,화	월,목	종합검진판정(수,목:오후)	
이 승 환	화,목,금	수	불분명한종상,흔한질환,노인병,금연,영양관리,피로	
일 반 의	월-금	월-금	종합검진판정(화,수:오후, 금:오전)	
정신과 2층 ☎5505	*이 민 수	월,수,금	월,수	우울증,스트레스장애,정신분열증
*김 린	화,수	화,목	(2009.08 해외연수)	
*이 현 정	목	화,목	기분장애,수면장애,정신분열증	
*강 이 현	목,토	화,금	우울증,불안장애,노인정신의학	
*강 승 걸	목,토	화,금	일반정신의학(토-3주)	
이 화 영	화,토	토	일반정신의학(토-1,2,4주)	
일 반 의	토	월,수,목	일반정신의학	
신경과 2층 ☎5510	*이 대 회	월,목	화	뇌혈관질환,치매
*박 건 우	월,화	목	파킨슨병,운동장애,기억장애	
*정 기 영	수	월,목	간질(경련성질환,실신),두통,어지러움증,수면장애-목:오후	
*유 성 옥	화,목,금	월	뇌졸중,어지럼증,뇌혈관질환,두통(목:오전2,4주)	
주 병 익	금	화,수,금	신경과질환,어지럼증,두통(목:오전 2,4주)	
일 반 의	수,금	수,금	신경과질환	
산부인과 2층 ☎5450	*나 중 열	화	목	불임,폐경기관리,내분비질환
*이 규 완	수	월	부인암(자궁경부암,난소암,내막암)	
*강 재 성	월	금	부인암(자궁경부암,난소암,내막암)	
*김 선 행	목	수	불임(체외수정),폐경기관리,여성내분비	
*김 영 태	화	월	유전질환,내시경수술,탈자궁	
*김 탁	수	화	불임(체외수정),폐경기관리,골반경수술	
*홍 순 철	월	화	산과,고위험임신	
송 재 윤	금	목	부인암(자궁경부암,난소암,내막암)Colpo시술(로봇수술)	
박 현 태	금	금	부인과내시경수술,일반산부인과	
안 기 훈	목	수	탈자궁,일반산부인과	
불임클리닉: 김선행(월-금 오전) / 나중열(월-금 오후) / 임신중약물,임신전건강: 홍순철(월:오전)				
피부과 2층 ☎5470	*개 영 철	월,목,금	화	건선,탈모,아토피피부염,레이저
*안 효 현	수	월,수,금	월,수,금	아토피피부염,여드름,백반증,레이저
서 수 흥	화	목	화	피부종양,백반증,피부미용,레이저
일 반 의	월,수,금	월,수,금	일반피부과학	
비뇨기과 2층 ☎5530	*김 재 종	수,금	수	남성과학,불임
*이 정 구	월,목	월	배뇨장애,오실금	
*천 준	화	화,목	중양학,전립선암(로봇-복강경수술)	
*강 석 호	월,수	월,수	중양학(로봇-복강경수술)	
*고 영 휘	화,목	화,목	내 비뇨기과학	
최 훈	금	금	일반 비뇨기과학	
일 반 의	화,금	화,금	일반 비뇨기과학	
재활의학과 2층 ☎6470	*권 희 규	월,수,금	월,목	전기진단,뇌성마비,척추손상
*강 윤 규	화	월,목	통증,관절염	
*편 성 범	목	화,수	뇌졸중,전기진단	
*이상 현	목	목	어깨통증,척추디스크,관절염	
김 기 훈	화,금	화,금	견관절통증,척추손상,일반재활	
일 반 의	월,금	월,금	오통,견관절통증,경부통증	
치과 2층 ☎5423	*권 중 진	월,금	화	구강외과
*임 용 규	수	월,수,목	교정과	
최 연 조	화,목	월,금	보철과	
*전 경 아	화,목	월,목,금	보존과	
민 경 기	월,화,금	월,화,수,금	구강외과	
지 숙	화,수	월,수,금	치주과	
일 반 의	월-금	월-금	치주과	
이비인후과 2층 ☎5485	*이 상 학	월,수	월	비교알레르기,후각,코성형
*정 학 현	목	월,목	이과,소아이비인후과	
*정 광 윤	화,목	화	후두암,갑상선암,음성장애(로봇수술)	
*백 승 국	수,금	수	하인두암,편도암,구인두암,두경부종양,갑상선암	
*임 기 정	월,금	금	이과,어지럼증	
*김 태 훈	화,목	목	비교(비염,부비동염,코성형)	
정은 재	화	화,금	음성장애,음성성형술,편도수술,두경부질환	
장 지 원	수	수	이과,어지럼증	
일 반 의	월,수,금	월,수,금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3층 ☎5571	*이 남 준	월-금	월-금	뇌혈관조영술 및 뇌두경부 중재시술
*김 윤 환	월,화,목,금	월,화,목	간암 및 복부 인터벤션시술	
조 성 범	월,수,금	월,수,금	간암 및 혈관 인터벤션시술	
박 성 준	월,수,금	월-금	간암 및 혈관 인터벤션시술	
강 장 호	토		근골격계질환 및 통증의 중재시술	
통증의학과 3층 ☎5529	*장 성 호	월,목	월,목	통증관리
*이 혜 원	수	화,수,금	통증관리	
박 지 용	화,금	화,수,금	통증관리	